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06호

발행인 : 김정태
발행일 : 2015년 12월 2일(수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12월 5일! 모이자! 서울로!

박근혜 정권의 노동법 개악 끝장낼 때까지 투쟁한다!

자랑스러운 대전충북 금속 조합원 여러분!

말입니까?

노동자들은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대회에서 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아 버리는 박근혜정권의 노동법개악을 반대했을 뿐입니다. 농민들은 농민의 생존권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을 뿐입니다. 이 땅의 민중들은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폭력경찰은 차벽을 치고, 최루액 물대포를 쏘면서 노동자, 농민의 정당한 주장을 가로막으려 했습니다.

그 와중에 농민 백남기 선생님은 폭력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위중한 상태에 있습니다. 폭력경찰 수장 강신명 경찰청장은 사과는 커녕 ‘불법시위’ 운운하고 있고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한술 더 떠 ‘IS’ 을 빗대어 자기들의 뜻에 반대하는 노동자, 농민, 민중들을 테러집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먹고, 자고, 교육받고’ 사는 생존권을 지키려는 노동자가 테러범입니까?

노동자는 ‘조선시대 양반의 종’ 도 아니고, ‘자본의 고기만찬 먹거리’ 도 아니고, ‘쓰다가 질리면 버리는 물건’ 도 아닙니다. 사장 맘대로 해고시키는 ‘일반해고’ 노동법을 만든다는데 가만히 지켜볼 노동자가 어디 있단

자기의 아들, 딸들을 평생 비정규직 노동자로 만들어 ‘가진 자의 머슴’ 으로 만들겠다는데 반대하지 않을 노동자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12월 5일(토) 다시 갑시다! 서울로!

자랑스러운 대전충북 금속조합원 여러분! 힘들지만 다시 올라갑시다. 서울로! 그래서 노동자의 노동법개악 반대가 11월 14일 한 번의 투쟁으로 끝난 것이 아님을 똑똑히 보여줍시다.

그 어떠한 장벽도, 거짓말도, 음해조작도, 노동자의 대투쟁을 막을 수 없음을 12월 5일(토) 2차 민중총궐기대회 참여로 보여줍시다.

자랑스러운 대전충북 금속조합원 여러분의 참여 그 자체가 노동법개악 투쟁 승리의 힘입니다. 12월 5일(토) 서울에서 만나 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장 김정태 드림

2차 **민중총궐기** 3시
국민대행진 4시 30분

12월 5일
서울도심

* 14시 금속노조 결의대회

금속노조 ‘총파업 조직 총력’ 결의!

금속노조가 40차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결의했다. 노조는 11월 30일(월) 14시 충북 제천 청풍리조트에서 정기대대를 개최하고 총파업 투쟁을 포함한 9기 1년차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박근혜 정권의 노동시장 개악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에 금속노조가 선봉에 설 것을 결의한 것이다.

대의원들은 2시간 여의 토론과 정회를 거친 후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아래와 같은 투쟁계획을 결정했다.

- ▲민주노총 위원장 침탈 시 즉각 총파업에 돌입한다.
- ▲노동개악 법안 논의가 시작되는 임시국회 개원 시 경고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계획을 중집에서 수립해 집행한다.
- ▲12월21일 이후를 총파업의 유력한 시기로 보고 임시국회 개원 시부터 총파업 조직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임원 현장순회, 전 지부 및 지회 출퇴근 선전전 등)

대의원들은 노동개악 저지 사업계획 외에 9기 1년차 사업목표로 ▲현장투쟁 강화를 통한 15만 투쟁 승리 ▲산별노조 위상에 맞는 사회정치적 투쟁 강화 ▲금속산별 전망 재정립 및 조직혁신, 30만 제조산별 토대 마련 ▲통합적 조직운영 및 혁신 등 5대 목표를 결정했다.

노조는 현장투쟁의 일환으로 ‘더 쉽고 더 편안하고 더 안전한 일터’를 핵심 구호로 건강권 쟁취 투쟁을 전개한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와 사업장 위험성 평가 등을 전 조직적 사업으로 벌이고, 이를 위해 노조와 지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와 일방해고 저지, 임금체계 대응 등의 현장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고용보장 문제에 대한 대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투쟁사업장 문제 해결을 위해 집중투쟁을 전개한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노동자들의 원직복직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투쟁기금 마련 재정사업

자연의 선물!

완도 직배송 청정식품!

소말치 18,000원			
디포리다시멸치(소) 15,000원	재래김 14,000원	구이김(3봉) 5,000원	쥐포 15,000원
복음자반(4봉) 10,000원	오징어채 13,000원	복이채 13,000원	건새우 13,000원
미역(500g) 15,000원	다시마(500g) 13,000원	오징어 8,000원	파래김 5,000원

문의 권옥자 010-2943-0038 계좌 국민 404001-04-039221 방금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충북지역지부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

‘백골단’ 부활 거꾸로 가는 경찰의 시간

2차 민중총궐기를 앞두고 경찰의 진압방침이 강경 일변도로 치닫고 있다. 경찰관 기동대로 이뤄진 검거전담부대를 집회 현장에 투입해 복면을 착용한 시위대를 현장에서 바로 검거하겠다는 계획까지 내놓았다. 20세기 독재정권의 유물로 여겨졌던 체포전담조 ‘백골단’이 21세기 서울 한복판에서 되살아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폭력시위 대응방침을 공개했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시위대를 특정해 유색물감을 뿌린 뒤 현장에서 검거한다는 내용이다.

경찰의 방침을 두고 과거 시위대에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던 백골단의 부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86년 5·3 인천사태 때 처음 모습을 드러낸 백골단은 당시 정부의 시위진압방침이 방어 위주에서 포위·체포 위주로 바뀌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청바지에 청재킷을 입은 채 하얀 헬멧을 착용하고 나타나 백골단으로 불렸다. 91년 명지대 재학생 강경대 군이 백골단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백골단 해체를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졌고, 97년 연세대 사태 이후 해체됐다. 현재의 기동대는 백골단 해체 이듬해인 98년 창설됐다.

한편 서울 조계사에 은신한 한상균 위원장의 신변이 불안해지고 있다. 30일 오후 일부 신도들이 관음전에 혼자 있던 한 위원장에게 퇴거를 요구하며 완력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한 위원장이 입고 있던 옷이 찢어지는 등 마찰이 일어났다.

민주노총은 이날 저녁 관음전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관음전 안에는 한상균 개인이 아니라 2천만 노동자의 운명이 피신해 있다”며 조계사측에 한 위원장에 대한 신변보호를 거듭 요구했다. 이어 경찰에 대해 “부처님의 법당에 권력이 난입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경찰이 조계사를 침탈할 경우 민주노총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저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